

## 天命篇

子曰、順天者 存 逆天者 亡。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孔子が言うのに空に順従する者は住んで、空に逆う者は亡びる。

康節邵先生曰、天聽 寂無音 蒼蒼何處尋。非高亦非遠。 都只在人心。

⇒강절 소선생이 말하기를, 하늘의 들으심은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멀고도 아득한 푸른 하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康節邵先生が言うのに空の聞くことは静かで音がないから遠くて遥かな青い空をどこで捜すことができるのか?高い所にあることも遠い所にあるのでもなくて全てのものがただ人の腹中にあるのだ。

玄帝垂訓曰、人間私語 天聽 若雷 暗室欺心 神目 如電。

⇒현제가 훈계를 내려 말하기를, 사람의 사사로운 말일지라도 하늘의 들으심은 우레와 같고, 어두운 방에서 남의 마음을 속이더라도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玄帝が訓戒を下げて言うのに人の私的な言葉でも空の聞くことは雷のようで、暗い部屋で他人の心を欺いても鬼の目は稲妻のようだ。

益智書云、惡鐘 若滿 天必誅之。

⇒《익지서》에 이르기를, 만일 악한 마음이 가득차면 하늘은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益智書》で言うのに若し、悪い心がいっぱいであれば空は必ず罰を与えるでしょう。

莊子曰、若人 作不善 得顯名者 人雖不害 天必戮之。

⇒장자가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악을 행하여서 세상에 이름을 내는 자는 비록 사람이 그를 해치지 않는다 해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니라.

⇒莊子が言うのに若し、人が悪を行って世の中に名前を出す者は例え人が彼を害しないと云っても空が必ず彼を殺すであろう。

種瓜得瓜 種豆得豆 天網 恢恢 疎而不漏。

⇒오이 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서 엉성하기는 하나 결코 새지는 않는다.

⇒胡瓜の種を植えれば胡瓜を得て、豆の種を植えれば豆を得る。空の網は広くて締めりが無いが決して漏れない。

子曰、獲罪於天 無所禱也。

⇒공자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여 하늘에 죄를 지으면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孔子が言うのに悪を行って空に罪を犯せば訴える所がなくなる。